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문 제정·공포에 즈음하여



金貴坤 / 서울대 교수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문 제정(기초)위원회 위원

배경

1992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문」을 공포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이 선언문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조치와 국제적 협력을 유도하는 광범위한 준거를 국가와 국민에게 정식으로 표명하는 문서이다.

군주가 시민을 지배하던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인권선언이 필요하여 오늘날 자유민주국가의 기틀이 되게 된 프랑스의 「마그나 칼타」(Magna Carta, 1215), 영국의 권리장전(Bill of Right, 1689)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인간이 환경을 훼손하는 고도산업 사회에서는 이를 보전하기 위한 환경선언은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인 명제로 등장했다.

환경보전문제가 전세계적인 현안문제로 등장한 것은 공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자연파괴와 공해가 가속된 60년대 중반이후였는데, 그이후 국제기구를 포함한 세계각국의 환경관련 협약 및 선언문 현황을 살펴보면, 1972년의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시작으로, 세계자연협약(1982), 미국의 국가환경정책선언(1969), 네델란드의 환경선언(1970), 일본의 자연보호협약(1974), 일본 경단연지구환경협약(평성 3년 4월 23일), 유럽의물협약(1968), 유럽토양협

장(1972), 유럽해안협약(1981), 유럽지역/공간계획 협약(1983), UNEP가 채택한 「2000년대를 향한 환경전망 : 세계개발을 위한 준비(1987)」 등이 있으며, 금년 6월 1일부터 2주일동안 브라질 리오에서는 72년 스톡홀름에서 채택한 유엔인간환경선언 20주년을 맞아 1백70여개국의 정부대표와 환경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환경정상회담이라고 불리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열려 리오선언과 함께 환경보전을 위한 「의제21」이 채택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8년 자연보호협약(내무부)이 채택된 후, 환경보전국민생활수칙이 환경처에 의해서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위와같은 국제간 협조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지구환경은 갈수록 악화되어가고 있으며, 국내환경 역시 마찬가지인 실정이다. 그동안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처의 설립, 각종 법제화 작업과 행정조치가 꾸준히 계속되어 왔으나, 대기 오염, 수질, 토양오염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자연생태계의 파괴역시 심각해져 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6월 5일 환경의 날에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 선언문」이 대통령에 의해 공포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성격과 범위

전문과 14개 분야에 걸쳐 환경보전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이 국가선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환경 및 개발 추세의 분석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속 가능한 삶의 질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선언은 오는 6월의 유엔환경개발회의 때를 같이하여, 단기적으로는 구속력 있는 국제환경협약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의 실현을 위한 국내제도의 획기적인 개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선언은 개발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목적은 서로 조화될 수 있다는 신념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회의 단기적 목적은 물론, 장기적 목적을 동시에 충족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까지 꾸준한 법제화와 행정조치 등 환경부문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조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것은 정책 우선 순위에 있어 환경행정이 개발우선행정에 밀려 환경법규정과 행정지침 등이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임을 감안할 때, 이 선언은 이상적인 국가경쟁정책의 방향과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선언은, 효과적인 환경 개선은 경제사회 개발정책과 프로그램의 조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이 선언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자자손손 쾌적한 환경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이 선언은 끝을 맺음으로서 계속적으로 환경이 파괴될 경우 초래될 경제성장과 전반적인 사회복지의 손실의 진정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그와 같은 위험성을 예측하여, 방지하고 저감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잇수에 관한 의사 결정 방법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즉, 의사 결정에 있어 어느 대안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결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려를 제안하고 있다.

이 선언은 또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한국 고유의 가치를 환경보전 및 창출에 반영시키고 있

어, 한국적 ESSD 모형의 개발을 촉구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선언은 미래를 내다보는 하나의 문서로서 평범한 시민으로부터 환경론자는 물론 경제인에 이르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사 결정자들을 대상으로 폭넓게 미래의 바람직한 환경상의 정립과 이의 실현을 위한 지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선언은 종래의 환경관련현장이나 유사한 선언에 비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환경보전의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환경과 개발의 조화 목표의 추구를 위하여 통합적인 접근을, 특히, 강조하고 단순한 환경보전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쾌적한 환경의 창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의 기여를 밝히고 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환경용량의 범위내에서 미래세대를 고려하는 발전을 말한다.

분야별 환경보전의 원칙

이 선언의 전문에서는 일반적인 환경 및 개발의 잇수와 이를 잇수를 다루는 목표를 밝히고 있으며, 14개 항에 걸친 환경보전기본원칙에서는 주요 인간 활동의 분야별로, 앞에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행위들을 제시하고 있다.

분야별 환경보전원칙으로는 ▲쾌적한 환경창출을 위해 국민과 정부의 공동노력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 있는 추진 ▲모든 경제·사회활동과 연계된 사전 환경예방대책추진 ▲훼손된 자연환경과 파괴된 생태계 복원 ▲환경오염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기업의 책임과 의무 ▲모든 과학기술의 환경적 요인감안 ▲민간단체와 언론기관의 환경보전노력 ▲지구환경 문제에의 적극 동참 ▲지속적인 환경교육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어 있다.

통합적 접근방법의 도입과 정책조정 기능의 강화

환경적 잇수는 그 성격이 다양하여 분야를 초월하고, 다학문적 접근을 필요로 하며, 그 영향 또한 광역적이어서 지리적으로 지역이나 국경을 초월하

여 일어나게 된다.

이 선언에서는 환경보전에 있어 통합적 접근방법의 도입과 정책조정기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통합적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제시되고 있다.

(1) 환경의사 결정수준의 통합

서로다른 의사결정 수준사이에서 형성되는 상호관련성에 대한 통합이 필요한데 이 선언은 개별사업 수준에서 야기되는 환경영향 뿐만 아니라 정책 수준(기본원칙 2)과 계획수준(기본원칙 4)에서도 그 결정과 시행에 앞서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2) 환경분야와 사회, 경제분야의 통합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국민소득계정에는 공장과 시설투자의 평가 절하는 반영하고 있으나 자연이라는 자원이 고갈되는 점은 무시되고 있어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감안한 국민복지 지표와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감안, 국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및 사회활동(기본원칙 3)은 물론 청신생활(기본원칙 12)까지를 합계 고려하도록 이 선언은 밝히고 있다.

(3) 환경보전주체의 통합

안락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창출을 위해 정부, 기업, 국민간 삼위일체의 총력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선언은 기업체임(기본원칙 6), 국민정책참여(기본원칙 5), 민간단체와 언론기관의 책임(기본원칙 9), 국민각자의 책임(기본원칙 10)을 제시하고 있다.

(4) 공간적 환경영향권의 통합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권역화, 국제화하고 있음은 물론, 그동안 국제사회를 근 1세기동안 지배해온 이데올로기 대립이 종식되면서 세계는 새로운 의제인 환경과 경제문제를 주요한 국제협력 분야로 다루게 됨에 따라 이 선언은 지구환경문제에의 적극 동참(기본원칙 11)을 밝히고, 대내적 대책은 물론, 권역별, 국제적 수준에서의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5) 연구개발, 교육과 정책의 통합

이상적인 환경정책의 구현을 위한 노력으로 이 선언은 산업구조개편(기본원칙 7), 환경과학 기술의 연구개발(기본원칙 8), 환경교육(기본원칙 10) 그리고 가치관의 전환(기본원칙 12)을 강조하고 있다.

위와같은 통합적 접근과 정책조정의 뒤에 숨어 있는 의미는 환경용량과 인구성장, 경제사회발전, 정책, 계획및 프로그램등을 연계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기본원칙 3」에서는 종합적인 환경행정체계하에 관계부처간의 효과적인 상호협조를 유지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의 정책의지에 거는 기대

끝으로, 이 선언은 이상적인 환경정책방향과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는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아, 이 선언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선언된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강력한 실천과 집행등 내실 있는 후속조치가 차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취해져야 할 것이다. 선언의 정신을 살려 관련분야별 전략과 실행계획은 물론 구체적인 실행 수단과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노력에는 사회 경제정책에서의 어떠한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국가적인 강력한 정책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심화되는 환경오염과 자연훼손문제에 직면하게 된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급속한 경제성장과 살기좋은 환경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경제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한국적인 ESSD의 본보기를 선발개도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선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모쪼록, 이러한 국가적 필요와 시대적 요청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대통령이 국내외에 정식으로 표명하는 국가선언을 계기로 하여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모두가 오늘의 세대와 미래의 후손들을 위한 환경보전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생활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환경보전에 관련된 국가선언으로 한국 국민에게 보내는 글

UNEP의 사무총장 Dr.Mostafa K.Tolba의 메시지

숙녀 여러분, 환경에 대한 국가선언을 한국이 하게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불과 몇 세대전에 환경에 관한 관심을 갖기 시작 하였습니다. 증가하는 환경오염, 환경파괴에 직면하면서 사람들은 생활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빠른 경제 성장을 원하느냐? 아니면 좀더 나은 환경을 원하느냐에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많은 것들이 변하여 왔습니다. 경제적 성장과 환경질이 서로 배제될 수 없는 목표임은 분명합니다. 동부아시아의 지속적인 성장을 하여온 국가들은 이미 우리에게 과거와 같이 높은 성장을 하면서도 보다더 적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그들의 빛나는 업적을 한국 국민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비록 오늘날 여러측면의 성장의 성장을 하면서 환경적인 측면을 덜 파괴 시킬지라도, 전체적인 자원사용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나라가 국가자원의 고갈로 경제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기술과 에너지 개발에 힘쓰도록 한국 국민에게 호소 합니다.

한국은 이미 국내적으로 볼때 상당한 발전을 했고 지금은 국제무대에 동참해야 하고 보다 넓은 세계로 진출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도적인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세계각국이 경제적인 도약에 따른 희생없이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교량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역시 대부분의 산업이 국내에서 못지않게 국외적으로도 환경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또한 한국은 지역발전과 개발도상국을 위한 산업개발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건데 한국 국민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렇게 성서스러운 일에 적극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문 제정

전 문

자연은 인간존재의 모체이며 삶의 터전이다. 인간은 공기와 물과 흙과 같은 환경의 은혜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다.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의존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환경용량의 범위내에서 자제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윤리규범이다.

이를 어기는 사람의 행위와 무관심이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와 지구의 존속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60년대 아래 급속히 진전되어온 산업화와 도시화로 우리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이제 더이상 방치할수 없을정도로 악화되었다.

지금 적절히 대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환경은 더욱 오염되어 품위있고 건강한 삶의 유지는 물론 지속적인 국가발전도 어렵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환경오염이 물고을 쟁앙을 막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슬기를 총집결하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환경보전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왔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와 환경을 보전하여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오늘의 세대와 미래의 후손들까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의 환경보전 기본원칙을 겨레의 의지로 선언한다.

환경보전 기본원칙

1.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그리고 살기좋은 자연환경은 반드시 보전되어야 하며 안전하면서도 생산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위해서 국민과 정부는 보다 나은 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모든 정책수립이나 개발활동은 그 결정과 시행에 앞서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발은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

3. 국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및 사회활동을 분석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계획과 이미 발생된 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종합적인 환경행정체제 하에 관계부처간의 효과적인 상호협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 우선의 시각에서 국토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이미 훼손된 자연자원과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제도를 확립하고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공개하여야 한다.

6. 기업은 환경오염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진다. 기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였을 때에 기업인은 즉각 이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이러한 실천이 기업윤리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여야 한다.

7. 산업활동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의 하나는 자원을 절약하는데 있다. 따라서 생산으로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우리의 산업구조를 자원이 절약되는 형태로 하루바삐 개편하여야 한다. 이를 국제사회에서의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필요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8. 정부와 기업은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그 결과가 실제에 응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이 개발된 모든과학기술은 그 실용에 앞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아끼지않아야 한다.

9. 민간단체와 언론기관은 공정한 환경보전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10. 국민각자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물자와 에너지를 아껴쓰는 전진한 소비풍토를 확립해야 하며 무관심으로 인해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진지하게 성찰하여야 한다.

11. 우리 모두가 지구촌의 일원이다.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펼치는 노력에 우리는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2. 우리는 이제 물질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정신생활을 향상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성장개념과 마음가짐을 정착시키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해나가야 한다.

13. 이같은 제반노력을 우리의 윤리규범으로 자리잡게 하기위하여서는 지속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환경교육은 학교교육에서는 물론 미래지향적인 평생교육을 통하여 환경보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합심협력하여야 한다.

14. 앞에서 천명한 환경보전과 창조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국가는 확고한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종합대책의 수립과 실천에 총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우리 모두는 이 선언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자자손손 쾌적한 환경에서 번영을 누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